

파주시, 문화공원 속 문산도서관 문연다

지하 1층~지상 3층 이전·신축... 오는 29일 개관식
미디어월·AI 로봇·실감체험도서 등 첨단기기도

경기 파주시는 오는 29일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산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구 문산도서관(개포로 42)은 지난 30여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 해 온 추억으로 남기고 당동리 문화공원(방촌로 1671)으로 옮겨 새로 건축한 도서관을 문을 연다.
22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개관

공유형 문화공간을 마련해 개관 전부터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산도서관은 공원내 도서관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도서관 내·외부 공간의 시간적 연결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고 어린이, 장애인 등 누구나 예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개관식 당일에는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가을 저녁 노을에 어울리는 제2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책은 일, 주는 마음 ▲달고 붉은 가을, 감홍로 이야기 ▲이승구 도예가의 기획전: 평화로 가는 길 등의 전시와 ▲블로나 라카치상 수상 작가와 함께 그리는 문산도서관 ▲이상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문산도서관 개관식은 오는 29일 오후 4시30분부터 문산도서관 잔디밭 광장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파주=조명희 기자 cho2@siminilbo.co.kr



장애인친화적 무상점점
이성일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21일 역북동 소상공인 소모임에서 열린 장애인친화적 무상점점 행사를 찾았다. 장애인친화적 무상점점 70여명은 이날 용인시 동북 장애인친화적 무상점점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라이닝·타이어·배터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전구류와 와이퍼·에어컨 필터 등을 교환했다. 사진은 이 시장이 점포주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시청 공원·돌뜰정원 공공예식장 개방

성남시, 내달부터 본격 운영
예식·출장비페도 컨설팅도

경기 성남시는 결혼문화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역에 2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남시 혼인건수는 4551

건으로 2022년대비 17.7%가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예식장 대안으로 시드(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분당구 율동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돌뜰정원 두 곳의 야외 공공예식장 지정해 운영한다.
각 야외 공공예식장에서의 결혼

비용은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으로, 성남시가 마련한 예식 표준 가격에 따라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전문 협력업체와 예비부부를 연계해 예비부부가 원하는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거나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화하면 된다.

공공예식장 운영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참치남녀 만남사업 '솔로몬의 신화'에 이어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특색있는 장소를 꾸준히 차가 발굴해 공공예식장 장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오영희 기자 ows@siminilbo.co.kr

내달 16~19일 킨텍스에서 '고양가구박람회'

시, 가구업체 98곳·리빙관 144곳 제품 선보여
매일 200명에 경품... 미니가전 불렛 이벤트도

경기 고양시가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2·3홀에서 '제18회 고양가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최 이래 18회를 맞은 고양가구박람회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가구·리빙 전문 전시회로, 최신 주거 트렌드와 실용적인 생활 아이템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박람회에는 98개 가구업체와 144개 리빙관이 참여해 국내·

외 유명 브랜드 가구, 신혼·이사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한다.
시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구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 활용과 디자인을 아우르는 최신 인테리어 흐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선착순 200명 관람객에게 경품이 증정되며,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불렛 이벤트에 참여해

미니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부부와 예비 입주자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고양가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을 완료하면 현장에서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가 가구·리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양홍 기자 mh@siminilbo.co.kr

연천군, '책 읽는 지자체' 4년 연속 大賞

한책 읽기·독서 마라톤등 호평
독서경영대학등 맞춤형 사업

경기 연천군은 최근 명지대학교 인문경쟁대학에서 열린 '2025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부문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책과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이라는 비전 아래 독서 문화 진흥에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제10회 책 읽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고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독서 문화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독서 열풍 확산을 도모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군은 2024년 제9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며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매달 장례문화 운영을 하는 '인문학'을 비롯해 한 도시 한책 읽기 캠페인, 작가와의 만남, 독서 마라톤, 독서 동아리 지원, 다양한 행사 참여는 독서문화진흥사, 그리고 전국 최초의 민간 협력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열쇠부대 독서경영대학' 운영 등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진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독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적극적인 독서 참여 덕분에 4년 연속 대상이 되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독서를 통해 지혜와 행복을 얻고,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연천=조명희 기자 cho2@siminilbo.co.kr

27·28일 '국제브레이킹대회' 부천시, 국가대표 선발전 2차전

경기 부천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차없는 거리에서 제10회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IBC: Bucheon International Breaking Championship)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부천시와 대한민국댄스포츠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전 2차전(브레이킹 K)을 유치해 대회의 위상과 공신력을 높였다.
대회 첫날인 27일에는 국내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한 2차전이 열린다. 기존에 실내 유료 행사로 운영되던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야외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8일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브레이킹대회가 이어진다. 경기는 단체전(5vs5), 개인전(1vs1), 카트 배틀로 구성되며,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안산시, 행정대상 일자리·경제대문 大賞

산업 재구조·경제생태계 호평
청년창업 펀드등 일자리 창출

경기 안산시가 최근 서울 중구 KOTEX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경제 부문 국외 행정안전위원회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상은 이태리(주)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후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시는 일자리, 창작·상권진흥, 경제·문화, 청년창업, 산업 재구조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

며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효용을 얻은 데에 대해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창업 펀드 조성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창조인력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지원 정책으로는 ▲이동노동자 지원 운영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산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 ▲블록상권을 살리는 '인선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해 일자리·창작·상권진흥을 실현한 경제·문화 부문도 수상했다.
안산=송윤기 기자 ygs@siminilbo.co.kr

내달 18일 '강화 10월에 콘서트'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오는 10월18일 오후 5시30분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2025 강화 10월에(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콘서트의 문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팀들이 연다. 강화노인복지회관 중급반 난타교실, 풍기타 여성 동아리 클러스터, 강화여중 동아리 해상 밴드4 무대에 올라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이외에는 본 공연에는 국가관수이합창, 트로트 스킨, 속독, 아이돌 그룹 8TUNE, 감성 속오 유리상자, 실력파 보컬 이보람이 출연해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신디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1층 강화문화관 3층 일민관에서도 공연해 운영된다.
안남=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외국에 간판→한글 바꾸면 최대 200만원

수원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내달 10일까지 업체 추가모집

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월10일까지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에 참여할 사업자를 추가 모

집한다. 한글 간판 사용을 늘리고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거나 한글 표기를 덧붙이는 업소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이 있는 업소로 총 18곳 내외를 선정한다.
기존 외국어 간판 한글 표기

간판으로 교체', '외국어 간판을 한글 표기명 덧붙이기'를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자기부담금 20% 이상 포함)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건물 업소가 동시에 신청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소규모 점포(영세 소상공인)는 우선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의광

고 사업자에게 견적과 디자인안을 의뢰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육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광고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고 말했다.
수원=김영민 기자 kim@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2025년 하반기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 가 진행 중인 모습.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 312명 현장 면접

경기 군포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장 채용 기업 22개사와 간접 채용 기업 5개사가 참여했으며, 43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 면접에는 312명이 응시했으며 일부는 즉시 채용됐고, 다수는 2차 면접으로 연계를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고용노동부 인양지점, 청년공간들라미, 군포시에인종합복지관 등 일자리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과 고용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구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이력서용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체험 등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박람회 참가 기업과 채용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군포시일자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포=송윤기 기자 ygs@siminilbo.co.kr

화성시, 지역화폐 캐시백 10% 추가 지급

경기 화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10월4일까지 '희망화성지역화폐 특별 캐시백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희망화성지역화폐로 3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로, 1인당 최대 3만원(결제금액 기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시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10월31일까지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한도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확대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캐시백 이벤트까지 더해지면 시민들은 지역화폐 결제액 기준 3만원부터 30만원까지는 2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캐시백은 지역화폐 충전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제외한 본인 충전금 사용분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연 매출 120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화성=송윤기 기자 ygs@siminilbo.co.kr

의정부시, 25~27일 '의좋은마켓' 사회경제적전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아라광장 3층에서 2025년 제2차 사회경제적 단기 기획전 '의좋은마켓'을 개최해 사회경제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의정부 도시교육재단과 협력해 상상상생이음 '보컬푸드 마켓'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행사에는 의정부 사회경제적기업 16곳과 경기도내 17개 등 총 32개 기업이 참여해 생활용품, 먹거리, 공예품 등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한다.
특히 ▲착한 경제 ▲나눔 활동 ▲환경경제인 ▲체험 부스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착한 경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기부한 상품을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익금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해 아동 복지 지원에 쓰인다.
인양홍 기자 mh@siminilbo.co.kr

인천 중구 영종역사관, 지역 유물 공개 구입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영종역사관'에서 전시와 연구,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종·용유 지역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입 대상 유물은 ▲영종국제도시(영종·용유지역) 관련 역사 자료 ▲영종국제도시 생활 문화 자료 ▲영종의 역사 인물 관련 자료 등이다.

매도 지역은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장자, 법인, 문화유산 매매업자 등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법인인 인천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확인 후 첨부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오는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 접수 후 해당 유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공개를 통한 도산문화유산 정보 조건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부가 결정된다.

의왕시, 바리산 휴양림서 '청명 리프레시' 교육

경기 의왕시가 지난 12주와 19일 2회에 걸쳐 바리산 자연휴양림 산림포교 휴양관에서 '청명 리프레시(Refresh)' 교육을 실시했다.
시 공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청명 전통문자 이신형 노무사가 조별과 다양한 사례와 영상 자료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반박법 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연말맞이 만들기 폭풍 게임과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행기행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피로를 풀고, 체력 활동과 휴식을 결합해 직원 간 소통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번 '청명 리프레시' 교육은 청명리의 체험과 휴식, 실용성 있는 법령 교육을 접목해 공직자 청명 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송윤기 기자 ygs@siminilbo.co.kr